

내실을 기한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 정리/김동진 기자

한 국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키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 종합전시장(KOEX) 본관 1층 태평양관에서 '95 한국양계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1년과 '93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규모 면에서 대폭 확대되어 15개국에서 138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395종이 전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생산자들을 위한 학술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과 소비자들을 위한 전시, 홍보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박람회 기간중 중부지방에 4백~6백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의 우려와는 달리 양계관련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9만8천여명이 참관, 기상여건을 감안할때 '93년도 못지않는 성공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 '95한국양계박람회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장면, 좌로부터 설동섭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 임광원사장(KOEX), 이영문의원(민자), 오봉국박사(양계박람회 운영위원장), 최인기장관(농림수산부), 양창식위원장(민자), 최준구회장(대한양계협회), 류종래조합장(대구·경북양계조합), 김홍국회장(대한가금처리협회), 김남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박근식회장(한국축산기자재협회).

표1. '95한국양계박람회 참가업체 현황

| 구 분 | 업 체 수 | 부 스 수 |
|-------|-------|-------|
| 기 자 재 | 63 | 245 |
| 식 품 | 11 | 17 |
| 부화·종계 | 11 | 19 |
| 사 료 | 8 | 10 |
| 약 품 | 7 | 9 |
| 기 타 | 38 | 38 |
| 계 | 138 | 338 |

*양계홍보관, 재래닭 전시부스 등은 별도

이번행사는 전시행사, 홍보행사, 각종대회 및 세미나행사 등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는데 기자재 및 시설전시가 총 전시면적(7,776 m²)의 87%를 차지하여 전시행사의 주 무대를 이루었으며 그외 특설대회장, 양계홍보관, 시식코너 및 휴게실, 재래닭 전시관 등이 홍보행사와 각종 세미나 장으로 활용되었다.

전시내용을 보면 양계기자재 및 시설에서는 닭 사육시설 및 기자재, 계분처리시설 및 발효시설, 양계산물 가공 처리 및 가공제품, 종계, 사료, 동물약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선을 보였고 그외에 가금류알 및 재래식 양계사육시설, 한국양계산업발달사 및 정책홍보, 한국의 재래닭 및 가금류 사진전시, 축산(양계) 관련 도서, 달걀 닭고기 홍보 광고 디자인, 양계산물 제품 등이 다채롭게 전시되었다.

'97년 7월이면 양계산물이 완전 개방된다는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약천우 속에서도 생산자들은 박람회 장을 찾아 기자재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자동화 직립식 케이지와 집란시스템 등에 큰 관심을 보여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외국기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시품이

적었던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경우 예년의 어느 대회때 보다 상당히 발전된 수준높은 제품을 선보여 양계농가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즉석에서 제품계약이 이루어 지는 등 예상보다 적었던 참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구매의사자들의 비율이 높아 이번대회가 내실있게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전시시설을 돌아본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9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번 박람회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육계계열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는데 삼계탕, 도리탕, 부분육, 햄, 치킨바, 스모그치킨, 프라이드치킨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으며 소비확대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채란업에 있어서도 계란 가공제품으로 만든 훈제란, 쇠고기 장조림란과 난황유를 상품화하여 만든 화장품, 난유비누, 기타 건강보조식품 등이 새롭게 선보여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93년에 전시되지 않은 제품중에는 천



△대형 멀티비전 등이 행사장 곳곳에 설치되어 입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리며 참관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연 달걀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반숙 또는 완숙하는 자동판매기가 선보였는데 홍보차 계란 1개에 10원씩 판매하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최근 질병등의 피해가 확산되어 방역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방역기 및 연막소독기 등도 여러 업체들이 선을 보이기도 했다.

박람회장 내부는 대형멀티비전과 TV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자동집란 과정과 각종 작업 과정, 자사제품 광고 등이 방영되어 입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리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양계산업을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공동으로 운영된 양계조합관에서는 난황과 난백을 분리하여 제빵과 제과 등의 다양한 원료를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방영하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아놓기도 하였다.

홍보행사로써는 달걀 닭고기 요리솜씨대회를 비롯하여 요리강습회, 양계산물 시식코너, 양계산물 전시 및 할인 판매를 위한 특별코너 등이 개설되어 양계산물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첫날 전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차심사를 거쳐 60명이 참석한 달걀 닭고기 요리솜씨 대회에서는 제주에서 출전한 나임순씨가 '닭고기 김산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는가 하면 박람회 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포스터, 글짓기, 우수양계인 등 각각의 수상자들에게도 기념패 및 상금이 박람회 행사기간을 통해 전달되었다.

한편, 특설 대회장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해 달걀 닭고기에대한 영양강의는 물론 생산자 및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양계인대회와 위생적인 양계산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상품관들을 전시하여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물의 생산과 처리를 위한 학술토론회도 열려 양계인 스스로 산업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설 대회장에서는 대한한의사회 강재만 부회장이 "달걀 닭고기 영양강의"가 있었는데 양계산물이 항간에 잘못된 속설로 일부에서 닭고기와 달걀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오히려 한의학적 효과가 크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양계인대회에서는 한국농촌연구원



△계열화 업체들이 적극성을 띤 이번 대회는 다양한 가공제품들이 소비자들의 구미를 돋구었다.



△달걀-닭고기 요리솜씨 대회 등 각종 세미나가 열린 특설대회장에서는 참관인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정영일 원장이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WTO체제에 대처하는 양계인의 자세”를 역설했고, 안덕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전업농 육성과 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축산기자재협회 박근식 회장 등이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계분의 자원화에 대해 유익한 내용들을 발표해 참석한 학계관련인은 물론 양계인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회장 한쪽에는 재래닭 및 가금사진 전시장을 만들어 참관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가금사진과 함께 보기드문 시론야계, 적색야계 등 재래닭 30여종을 한쌍씩 열을지어 배치 하여 번갈아 우는 우렁찬 소리가 박람회장을 가득 울렸는데 일부에서는 닭애호가나 수집가들에게 판매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양계홍보관은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위해 양계의 역사는 물론 부화과정부터 최종 생산물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양계를 이해할 수있는 축소판을 이루었는데 부화과정에는 어

린이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었으며 도서전시코너에는 어른들에게 각종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월간양계의 긴 역사를 보여주는 “월간양계 26년” 이 양계발달사와 함께 전시되어 이 채로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대만 등 외국바이어들도 대거 참여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행사를 방불케 했는데 태국에서는 오는 11월에 방콕에서 개최되는 VIV축산종합박람회에 국내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전시기간중 M사에서는 닭모습을 한 마스크트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몫을 하였으며 몇업체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병아리를 무료로 제공하여 노란물결로 진풍경을 이루기도 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입된 자원봉사자 24명은 축산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행사안내는 물론 각종 보조활동을 맡아 행사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박람회는 기상여건이 최악의 상태에서 일반소비자들의 참관을 저해 했을 뿐 아니라 계란가공 기계설비나 닭고기 가공기계 등 중장비 시설이 열악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특히, 전시품들은 대부분 외국제품으로 국내제품들의 참여가 적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관인들은 박람회를 자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박람회를 돌아본 대부분의 참관인들은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88%)고 설문을 통해 밝혀 내실있는 박람회로 한층 성숙됨을 느낄 수 있었다. **양계**